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

유수정¹, 최희진², 송인한^{3*}

¹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생, ²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³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A Study on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uidelines for Child Welfare Workers

Sujeong Yu¹, Heejin Choi², In Han Song^{3*}

¹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²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³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요약 최근 세계시민교육(이하 GCE)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아동기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GCE가 국내에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1) 국내외 GCE 정책·현황 조사 (2) GCE 전문가 심층 인터뷰 (3) 종사자 설문 조사로 교육 욕구 실재를 분석했다. 정책분석 결과 주로 학교체계에서만 행해진 국내 GCE와 달리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국내 GCE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설문 분석 결과 GCE에 대한 인지·관심·참여 의사에 경로 관계가 유의해 인지·관심 증대가 실천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확인하고 AIDA 모델에 입각해 GCE 인지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GCE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AIDA 모델, 융합

Abstract Although the ne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 has been emphasized globally, Korea lacks GCE for child welfare workers who affect children's global citizenship.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reality of educational needs by (a) investig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CE policies, (b) do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c) surveying workers. According to the policy analysis, GCE in Korea has been mainly conducted through the school system but it was conducted in various ways worldwide. The need to expand GCE in Korea was also emphasized in the in-depth interview. The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e path relationship among awareness-interest-desire to participate in GCE was significant, indicating that increasing awareness and interest for GCE was effective in real action. Based on this, we confirmed that GCE is a necessary education for child welfare workers, emphasized the need to raise awareness of GCE based on the AIDA model, and presented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GCE.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hild Welfare Facility, Education for Workers, AIDA Model, Convergence

*The paper was awarded by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in 2020.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project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the fair and inclusive society: Cultivating innovative, cooperative, and integrated experts) of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In Han Song(isong@yonsei.ac.kr)

Received February 16,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April 27,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의식을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타인과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을 그들과 연계시킬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이러한 능력은 상호 의존성 및 연결성이 심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다[2]. 특히 코로나 19, 기후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특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부여되는 국적과 달리 세계시민의 지위는 모두에게 주어진다[3]. 1948년에 유엔이 주창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천명하며 수많은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세계시민’의 개념은 곧 그 본질인 ‘사람’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하 GCE)의 정의에서 언급된 ‘포용성, 정의, 평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세계시민의식은 낮은 수준에 있다[4]. 포용성 정도는 사회통합지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재열 등(2014)[5]의 국가별 사회통합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 79개국 중 40위였다. Ipsos(Global Advisor)에서 실시한 전반적 포용성 지수 조사(Overall Inclusiveness Index)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25개국 중 18위로 중하위(lower middle)에 위치하였다[6]. EU와 OECD 사회정의지수(Social Justice Index) 2019를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의 정의 정도도 41개 국가 중 34위였다. 또한, 평화 정도는 세계평화지수와 사회갈등지수를 참고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체 83개국 중 48위로 중하위권에 있었다[7]. OECD 대상 사회갈등지수 결과에서도 2009년과 2011년 모두 5위권 내를 차지해 사회갈등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한편 점차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GCE는 필요하다[9].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GCE의 주요 가치인 인권과 존엄성이 핵심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실천현장이다. 사회복지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분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의 옹호자(advocator)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0].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는 실제 업무에도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은 GCE가 추구하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세계시민역량을 갖추는 때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Sherman(2016)은 세계시민의식과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간 친밀성을 인정하며 사회복지실천에 GCE를 도입해 사회 이슈의 국제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GCE가 사회복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로 1) 친사회적 가치 및 행동 지지 2) 지역 사회 및 글로벌 실무 지식 습득과 경험 3)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지 및 이해 4) 세계화된 사회에서의 자기 성찰 적용 총 4가지 측면으로 제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조명했다[11].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 및 현 종사자 교육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과 태도는 시설 아동의 성장발달 및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특히 강조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2017)가 보고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역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세계시민역량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부모의 의견존중이며, 교사 관계, 참여 활동, 부모 관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부모의 의견존중과 친밀성이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에 비해 아동의 세계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다. 시설 아동의 경우, 비록 일반 아동처럼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부모가 아니더라도 시설입소 후 그들을 양육하는 담당 직원, 사회복지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이들은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비롯한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12]. 따라서 이들에게는 부모 역할을 넘어서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그동안 행해졌던 기존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단순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실제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종사자들은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등에서 실시한 정기적인 교육에도 한 차례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설 기관이나 원내교육은 애초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내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종사자의 실제 적용이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1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인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은 아동복지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GCE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해 GCE 정책 및 모델을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GCE의 개념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해 실천현장에서의 GCE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2.1 GCE의 정의와 역사

세계시민주의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학자에 의해 논의되었기 때문에 GCE의 개념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다[9]. 세계시민이 단순 소속감을 넘어 법적 인 지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지가 불분명하고, GCE와 기존 교육 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GCE를 조직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3]. 그런데도 GCE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national-state)를 넘어선 시민의식'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3,9]. 이러한 공통 요소들을 모두 포괄해 2015년 유네스코는 GCE를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7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의식(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을 언급함으로써 G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CE를 향한 UN의 주도적 노력과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세계시민 관련 연구는 2015년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EF)에서 주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 포럼에서 GCE는 글로벌 교육 의제로 선언됨으로써 국제 사회의 전통적 시민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14]. 포럼의 개최지인 한국 정부도 GCE를 주요한 교육 의제로 제안하고 준비 과정부터 목표 달성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9]. 이후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을 시작

으로 사회, 도덕 등의 교과목을 통해 세계화 및 다문화화를 강조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인재상에 '세계시민' 개념을 추가하여, 세계시민의식은 한국 공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GCE의 담론은 '하향식의 국가 주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달방법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14]. 더불어 각 교과에 개별적으로 GCE 관련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총체적인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질화된 교육이 아닌 통합 교육을 마련해야 하며, 공교육뿐 아니라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실천현장인 아동복지시설에서도 GCE가 이루어져야 한다[14].

2.2 연구모델: AIDA 모델

AIDA 모델(Awareness Interest Desire Action Model)은 Lewis(1898)[15]가 마케팅 분야에서 구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제시한 개념이다. AIDA 모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위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인지(Awareness)로써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표적 소비자가 인지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의 이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관심(Interest) 단계이다. 관심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인지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다. 이후 소비자들은 관심을 넘어서 제품 및 서비스에 열망(Desire)을 갖게 된다. 끝으로, 이 세 가지 단계에 이어 나타나는 것은 실천(Action) 단계로, 앞선 인지-관심-열망에 이어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행동을 뜻한다[16].

본래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AIDA 모델은 교육에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한 예로, 중국의 절강 해양대학교(Zhejiang Ocean University) 경제학에서 기존 일방적 지식 전달 형태의 수업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도록 AIDA 모델을 개편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판매이며 학생이 지식의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마케팅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가 교육을 시행할 때 지식의 양과 더불어 의사소통 역량과 같은 마케팅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교육 또한 교사와 학생 간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IDA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AIDA 모델의 도입은 새로운 시도로서 교육계

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17]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AIDA 모델을 적용하면 그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18]. 사회기관에서의 소통 및 교육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19], 본 연구에서는 AIDA 모델을 적용해 사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인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GCE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3. 연구 과정

본 연구는 Fig. 1 Research Process와 같이 앞선 단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단계의 연구를 설계한 심층 연구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GCE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현황과 해외의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의 필요성을 조망했다. 이후, 현황 분석 단계에서 얻은 국내의 GCE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내 GCE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GCE가 담아야 하는 핵심가치를 도출해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적 설문 조사를 시행해 현장의 GCE 욕구도와 핵심 가치 우선순위를 파악했다. 위의 세 단계 연구를 거쳐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GCE 필요성을 조망하고 현장 종사자에게 적합한 GCE 지침을 제공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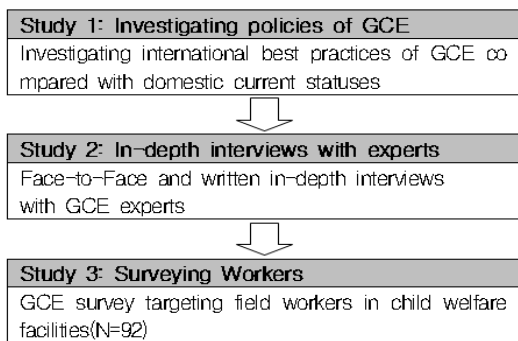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ss

4. 연구 1: 국내외 GCE 정책 및 현황 분석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GCE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향후 GCE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GCE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공교육과 NGO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성인 대상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GCE 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제작한 캐나다, 터키, 영국의 사례를 제시한 해외 학술 문헌, 연구자료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때 해외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특정한 GCE는 활발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희박했다. 이에 교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중 국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선정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공교육 교사는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공교육 교사는 아동복지를 촉진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해서 재검토해야 하는 공통의 의무를 지고 있다[20]. 이러한 점에서 공교육 교사 대상의 기존 GCE 선행연구들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에 주목한 본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 대상 해외 GCE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캐나다의 여러 차례 사례 연구를 진행하며 교사가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 중 GCE가 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학술적으로 제시하였다[21]. 터키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사회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8]. 비슷한 문제 상황에 부딪힌 국가의 GCE 교사 프로그램을 참고하기 위하여 터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공교육 과정에 GCE를 지정한 최초의 국가이며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GCE를 관리 및 진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정하였다[22].

4.2 연구결과

4.2.1 국내 현황

국내 대부분의 GCE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NG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NGO는 국제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논의되고 국내적으로는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점차 확대되며 국제 이슈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자 이에 발맞춰 GCE를 실시했다. 이때 한국 NGO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참여를 강조하며 '빈곤, 교육, 환경'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GCE를 실시해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총 130개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

중 22개의 단체가 GCE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62.5%, 15개 단체)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45.8%, 11개 단체)와 유아(29.2%, 7개 단체) 순으로 교육이 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GCE를 모두 지원하는 기관은 45.8%(11개 단체)였으며, 유아·초·중·고를 포함하는 단체는 25%(6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NGO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GCE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이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GCE 관련 직무연수를 하는 단체는 국경없는 교육가회, KCOC, 월드비전, 팀엔팀 정도뿐이다[23].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의 GCE는 공교육과 한국 NGO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교사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위한 GCE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도 한계점이 있다.

4.2.2 해외 우수사례

가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Larsen과 Faden(2008)[24]이 'ACT! Kit'를 제작하고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ACT! Kit'란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GCE를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교육지침을 제공하는 교사용 안내서다. 키트를 제작한 목적은 교사들이 GCE를 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을 효과적인 글로벌 교육가로 육성하는 데 있다. 'ACT! Kit'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GCE의 핵심 가치는 '세계화', '인권', '국가 간 연결'이다. 또한, 인접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두 국가 간 관련 있는 글로벌 이슈를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현장에서 'ACT! Kit'를 사용한 후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ACT! Kit'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교사 본인도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GCE 시간 외에도 글로벌 이슈 등 새로운 개념을 다룰 때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는 태도의 변화도 이끌었다. 'ACT! Kit'는 커리큘럼과 체계화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종사자의 세계시민의식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키트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 터키

터키에서는 Gogebakan-Yildiz(2018)[25]가 '교사들

위한 GCE 트레이닝 프로그램(Global Citizenship Training Program for teacher candidates, 이하 GCTP)을 개발했다.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사들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교사들에게 함양된 세계시민의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GCTP의 목적이다. GCTP에서 선정된 GCE의 핵심가치는 '다문화주의', '평등', '인권' 총 3가지이다. 교육 커리큘럼에서는 핵심가치를 구체화해서 '다문화주의'는 '세계의 여러 다양한 문화', '평등'은 '젠더 및 인종차별, 종교 차별, 민족 차별', 인권은 '여성과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등의 수업 주제를 진행하였다. 교육 방식은 정보전달형 강의뿐 아니라 영화, 도서 등 매체를 활용했고 토론 활동도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했다. 교육 이후 교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마주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이슈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게 되어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Gogebakan-Yildiz(2018)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형식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영국

영국은 공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22]. 실제로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GCE 보급과 관련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교육, 교재개발 등은 아동, 가족, 학교부(Department for Children, Families, and Schools)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만 GCE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 부처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Oxfam 등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GCE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교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온라인 교수학습자료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원(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방안 및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26]. 이를 통해 GCE가 공교육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GCE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을 알 수 있다[22]. 즉, 영국의 사례처럼 GCE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국가가 주도하면 공교육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GCE를 활발히 진행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GCE의 중요성을 심각하고 기존에 좁은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내 아동, 청소년 대상 GCE에서 확장해 종사자 대상 교육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처와 시민단체,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종사자 대상 GCE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공동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3 논의

국내 GCE는 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상당히 적다.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GCE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에게 세계 시민성을 올바르게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커리큘럼 제공 등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GCE 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터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의 세계시민의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대상 GCE 자체도 대부분 공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점은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학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 관련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GCE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공부처-시민단체 간 협력 사례를 보여준 영국처럼 국내에서도 담당 정부 부처와 GCE 전문 시민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 공공부처의 파급력과 행정, 시민단체의 GCE 전문성과 창의력이 더해져 효과적인 현장 종사자 대상 GCE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두 기관이 협조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5. 연구 2: GCE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심층 인터뷰

5.1 연구방법

5.1.1 인터뷰 설계

본 연구는 GCE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현장

에서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과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GCE 및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해당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GCE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GCE 전문가 및 관련 실천현장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GCE의 배경, 필요성 및 중요성, 정의, 핵심가치, 교육 방향성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5.1.2 인터뷰 진행 과정

본 연구 진행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GCE와 관련한 전문가로 대학교수 2명, 아동 국제 NGO 종사자 2명(이사장, 연구원), 지속 가능 발전 분야 실무자 2명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령대는 20~60대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학교수인 A는 지속가능발목표를 가르치며 B는 GCE 확산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C는 아동 국제 NGO 이사장으로 GCE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D는 아동 국제 NGO 소속 연구원으로서 실제 NGO에서 하고 있는 GCE를 설명해주었다. 실무자 2명은 대학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다. 지속가능발전 및 GCE와 관련해 학계에 있는 대학교수와 실천현장에 있는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GCE의 이론적 개념 및 종사자 교육 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아동 국제 NGO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아동 대상 국제 NGO에서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활용해 인터뷰 참여자로부터 새로운 전문가를 소개 받았다. 인터뷰 데이터는 2020년 7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에 걸쳐 수집하였다. 총 6명의 전문가 중 4명은 대면 인터뷰, 2명은 시간상 서면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대면 인터뷰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서 각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응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면 인터뷰의 경우 반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발송한 이후 답변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Table 1. Interviewees List

Field	Participants	Job
Academic	A	Professor
	B	Professor
Children International NGO	C	Chairman
	D	Researcher
Sustainable Development	E	Practitioner
	F	Practitioner

5.2 연구결과

5.2.1 GCE의 배경과 역사 및 맥락

A: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개발목표(SDGs)의 관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세계시민교육 논의는 지구촌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GCE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GCE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 관계성에 주목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UN이 2015년 채택한 전 지구적 실천과제로 어느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지구를 보호하면서 전 세계가 번영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추진된 17가지 목표를 지칭한다[27]. 지구촌의 위기의식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GCE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다양성 존중’의 키워드가 주목받게 되었다.

5.2.2 GCE의 필요성 및 중요성

A: “지역사회에 국한된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졌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지역을 넘어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특히, 현 우리 사회는 COVID-19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연대감이 강해진 만큼 세계가 하나라는 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GCE의 함의는 지역사회와 세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라는 지역사회 개념에서 GCE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한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GCE를 탐색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현장의 맥락적 요소를 고려한 실증적 수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28]. 특히 B는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아동복지보다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현 시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의 GCE 적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에 대한 고민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교육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게 하는 의의가 있다. ‘세계’를 단위로 했을 때 GCE의 의의는 국내 복지에서 나아가 글로벌 복지 차원에서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9].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 정신적 연대감이 강화되었듯이 지구촌 문제를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의식을 강조하는 데 GCE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5.2.3 GCE의 개념 및 정의

D: “지구촌 안에서의 ‘나’가 가진 역할과 권리를 알려 주고,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인터뷰 시 GCE를 정의하는 데 공통으로 언급된 요소는 ‘시민성 함양’, ‘다양성 존중’, ‘협력’이며 이는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도 강조되는 요소이다. ‘시민성 함양’은 지구촌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각하고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주체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GCE는 지역사회에 국한된 좁은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준다. 이때 자신의 시민성뿐만 아니라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인의 시민성을 같은 위치에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다양성 존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성 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올바른 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협력’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세계시민의식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협력은 GCE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5.2.4 GCE의 핵심가치

B: “다문화 및 문화적 다양성, ‘평등과 불평등’, ‘인간 존엄성’, ‘자유’,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인간 존엄성과 자유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

GCE가 담아야 할 핵심가치는 곧 GCE의 내용 구성과 연관된 중요한 주제이다.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가 주목한 GCE의 핵심가치는 ‘인간 존엄성’, ‘관계성’, ‘주체성’이다. ‘인간 존엄성’은 UN이 1948년에 발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에서 비롯된 가치이다. 다양

성 존중, 협력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적, 성별,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엄하다는 생각의 출발에서부터 세계시민의식은 함양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지역사회를 넘어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에 대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의견이 충돌할 경우 평화적인 갈등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시민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관계성'은 곧 인간 존엄성과도 맞닿아 있다.

세 번째는 '주체성'이다.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역할과 권리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고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다. 주체성은 특히 복지시설에서 중요한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쉽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는 호소 문제의 당사자로서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위 세 가지가 종사자에게 교육될 경우 (1) 대상자를 존중하고 (2)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와 협력하며 (3)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상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의의가 있다.

5.2.5 GCE의 실행 방법

C: "국제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적과 달리 지역 정체성,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정체성은 지위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정체성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다. (중략) 즉, 세계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정의하고 고찰하면 교육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수월할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GCE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킬지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적과 달리 세계시민의식의 기반이 되는 '세계 정체성'은 지위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통찰, 세계 시민성의 전환적 사고방식'이다. 우선, 세계 정체성이 곧 개인의 인간 정체성으로 회귀한다는 점에 주목해 세계 시민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하며 지역화된 세계 시민성에서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적 사고방식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문화특수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A는 문화적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타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오랜 시간 국가주의적 담론이 지배적이므로 다양성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과거 국위선양을 위한 지역화된 세계시민성을 넘어서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GCE 실행에 있어서 필요하다.

5.2.6 GCE의 비전 및 방향성

A: "기존의 하향식 교육에서 상향식 교육으로 바꾸어 교육 대상자들의 수업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

끝으로 GCE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몇 가지 유의 사항과 더불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핵심적 의견은 '교육 참여자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일방적이고 하향식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참여자가 GCE의 정의와 핵심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GCE 개념 자체가 낮은 참여자들에게 이 시대에 세계 시민성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B는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C는 교육 내용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교육 방식을 고민하는 문제는 훨씬 수월하므로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을 어떻게 임파워(empower)할지 충분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종사자 대상 GCE 내용에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5.3 논의

총 6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GCE의 필요성, 정의, 핵심가치 등을 탐구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GCE의 핵심가치 부분이다. 해외 여러 연구를 볼 때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어 GCE의 콘텐츠를 구성했기에 본 연구도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공통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성', '관계성', '주체성'에 집중했다. 이에 근거해 GCE 지표인 '평화, 인

권, 다양성 존중, 지속 가능 발전, 환경'을 선정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GCE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해하고, 그 권리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교육'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세계시민의식은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한 의식인 동시에 인간 존엄성 및 인권 존중을 이루는 데 중요하며, GCE가 이 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6. 연구 3: 현장 종사자 GCE 욕구파악

6.1 연구방법

6.1.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 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을 모두 아동복지시설로 포함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11항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유형과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서비스는 모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8월~9월, 총 5개 기관(굿네이버스, 영락보린원, 에텔마을, 신망원,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92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해 기초통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설정된 일반적 특성은 교육수준, 직무, 성별, 직위, 연령, 근무 경력이다.

또한, 연구모델의 추가 분석을 위해 AMOS 26.0 프로 그래프로 경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서영숙과 정추영(2017)의 연구를 따랐다. 연구모형을 설계할 때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 설문참여 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관심과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선행연구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관한 교내 연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별이 관심 단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네트워크 참여 의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성별이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0]. 세계시민성에 있어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다. 최유선, 손은령, 박소리(201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세계시민성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31]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6.1.2 이론적 배경: AIDA 모델 적용

AIDA 모델은 Fig. 2와 같이 인지(Awareness)→관심(Interest)→참여의사(Desire) 과정에 의해 실천에 이르게 되는 행동을 설명한다. 인지가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심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32]. 따라서 본 연구는 AIDA 모델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GCE에 대한 인지가 그들의 관심과 참여의사에 영향을 주어 실제로 GCE 참여에 도달하게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GCE에 대한 인지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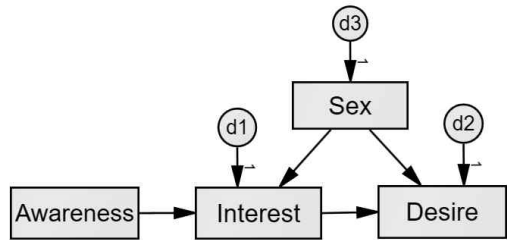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6.1.3 분석 도구: GCE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계시민교육 욕구파악에 관한 설문 조사' 설문지를 온라인/오프라인 형태로 제작하였다. 설문지 개발에 앞서 국내 GCE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김다원, 이경한(2017)의 연구에 따르면 GCE 담당자들은 연수기회가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를 토대로 GCE 인지 정도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을 묻는 말을 설문에 추가했다. 또한, 앞서 진행한 인터뷰와 현재 국내 GCE에서 강조하는 평화, 인권, 환경과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했다[33]. 설문지의 큰 틀은 서울지역 자활사업 실무자 교육 욕구 조사를 비롯해 기존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욕구파악 관련 설문지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인구 사회학적 특성, GCE 인지/

관심도/참여 의사 등 욕구, 핵심가치 관련 AHP 문항, 교육 방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IDA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인지, 관심, 참여의사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현장 종사자들의 GCE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예: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아십니까?), GCE 관심 수준을 질문한 후(예: 세계시민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GCE가 개설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지(예: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알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참여 의사가 낮은 응답자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가 낮은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여(예: 수감할 이유가 없거나 보통이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한 이유가 해결된다면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사자 대상 GCE를 개발할 때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종사자 대상 GCE의 커리큘럼 구성을 위해 AHP 문항으로 종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순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희망 교육 시간, 방식, 장소를 질문하여 GCE 개발에의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6.2 연구결과

6.2.1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92명 중 여성이 78명(86.7%)으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분포는 40대(28명, 31.1%)와 30대(27명, 30%)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9.10세($SD=9.67$)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53명, 5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석사 졸업 혹은 재학(18명, 20%), 전문대 졸업 혹은 재학(16명, 17.8%)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근무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근무 시설 유형은 입소, 거주 시설(58명, 64.4%)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17명, 18.9%)가 약 20%, 센터 및 기타 이용시설(8명, 8.9%)과 기타 기관(7명, 7.8%)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지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복지서비스 제공(53명, 60.2%)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기타(13명, 14.8%)에 응답한 답변 중에도 아동복지서비스 담당자가 많았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실제 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직위는 일반 직원(59명, 65.6%)이 가장 많았으며 최고 관리자(16명, 17.8%)와 중간관리자(12명, 13.3%)는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 참여자

들의 근무경력에는 4~8년 미만(28명, 31.1%), 4년 미만(27명, 30%), 12년 이상(24명, 26.7%) 등 다양한 경력층이 고르게 답변하였다.

6.2.2 인지-관심, 관심-참여 의사 분석 가 회귀분석

Table 2.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Interes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B	β
Awareness			.446	.455***
EL	.056	.032	.007	.004
Responsibility	-.357	-.198	-.250	-.139
Sex	.274	.102	.427	.159
Position	-.306	-.165	-.060	-.033
Age	.032	.352***	.032	.349***
Career	-.047	-.305	-.027	-.175
Constant	2.405***		.992***	
Adj. R ²	.174		.357	
R ² change	.229		.178	
F	4.117		8.064	

EL=Education Level
Reference Group: Sex(Female)
*** $p<.001$

AIDA 모델에 근거해 GCE 실천(Action)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 인지 정도-관심 정도, 2) 관심 정도-참여 의사를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는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인지 정도는 관심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5, p<.001$). 즉, 인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심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 교육수준 등 설문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이 관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참여 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로 분석되었다($\beta=.349, p<.001$). 이로써 인지 정도가 관심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관심 정도는 참여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61, p<.001$). 앞서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심 정도가 높아질수록 참여 의사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 관심 정도와 참여 의사 각각의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두 관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Desire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B	β
Interest			.442	.461***
EL	.025	.015	.000	.000
Responsibility	-.240	-.139	-.082	-.048
Sex	.352	.137	.231	.090
Position	.028	.016	.164	.092
Age	.017	.200	.003	.037
Career	-.041	-.273	-.020	-.132
Constant	3.042***		1.979***	
Adj. R ²	.035		.201	
R ² change	.100		.034	
F	1.539		4.204	

EL=Education Level
Reference Group: Sex(Female)
*** $p < .001$

나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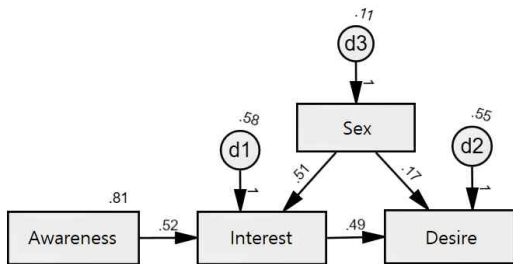


Fig. 3. The Result of Path Analysis

Fig. 3은 연구모형의 결과를 나타내고, Table 4는 인지 정도→관심 정도→참여 의사 간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여준다. 경로 분석결과 인지 정도→관심 정도는 표준화 계수(β) 값 .518($p < .01$), C.R.값 5.926이며, 관심 정도→참여 의사는 표준화계수(β)값 .508($p < .01$), C.R.값 5.597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인지 정도→관심정도→참여의사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26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 < .05$) 인지 정도와 참여 의사 사이에서 관심 정도가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효과 검증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소벨 테스트(sobel test) 결과 또한 유의하였다($z=4.08, p < .001$). 이를 통해 인지 정도가 관심 정도에, 관심 정도가 참여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 성별은 성별→관심 정도의 직접효과 .188($p < .05$), 성별→참여 의사의 간접효과가 .095($p < .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집된 표본의 성별이 남성 12명(13.0%), 여성 80명

(87.0%)으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Table 4.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among the Variables

Effect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wareness→Interest	.518**		.518**
Interest→Desire	.508**		.508**
Sex→Interest	.188*		.188*
Sex→Desire	.066	.095*	.162
Awareness→Interest→Desire		.264**	.264**

Reference Group: Sex(Female)
** $p < .01, * p < .05$

다 업무 도움 정도, 관심 정도, 참여 의사 상관관계 한편 GCE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GCE 관심 정도, 참여 의사가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업무 도움 정도와 관심 정도를 상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367, p < .001$). 또한, 업무 도움 정도와 GCE 참여 의사의 관계도 상관분석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664, p < .001$). 따라서 GCE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관심 정도, 참여 의사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3 AHP 분석을 통한 GCE 지표 우선순위

가 계층적 분석기법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Thomas Saaty(1980)[34]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각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해 최적 대안을 선정하도록 한다[35]. 구체적으로, AHP 분석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으로 다수인자, 다수의 의사결정자, 다기준,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이다. 또한, 목표들 사이의 중요도를 요소 간 쌍대비교를 통해 파악해 중요도를 산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 평가 기준의 계층적 과정으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 기준의 비교로서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쌍대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가중치 종합으로 여러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구해진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하게 된다.

나 연구결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GCE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해 지표 간의 우선순위 쌍대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GCE 지표 기하평균은 Table 5와 같이 나왔다. 이때, 본 AHP 조사의 CI는 .00157로 현재하게 낮아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CR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Saaty(1980)를 기준으로 응답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이었다. AHP 조사를 통해 산출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은 GCE 지표의 우선순위를 1순위 환경(1.35), 2순위 인권(1.12), 3순위 다양성 존중(1.00), 4순위 지속가능발전(.93), 5순위 평화(.77)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Result of AHP in GCE Indexes

Factors	PC	HR	RD	SD	EV	total	M	CM
PC	1	.67	.76	.82	.62	3.87	.77	5.03
HR	1.50	1	1.06	1.15	.90	5.60	1.12	5.02
RD	1.32	.95	1	1.06	.70	5.02	1.01	4.99
SD	1.22	.87	.94	1	.62	4.66	.93	4.98
EV	1.60	1.11	1.44	1.60	1	6.76	1.35	5.02

CI=.001761 RI=1.12 CR=.001572

PC=Peace, HR=Human Right, RD=Respect for Difference, SD=Sustainable Development, EV=Environment

6.3 논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GCE의 인지 정도-관심 정도-참여 의사 변인 간 관계가 AIDA 모델에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GCE의 인지 정도에 따라 관심 정도가 정적으로 변화하고, 관심 정도가 증가할수록 참여 의사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AIDA 모델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GCE 참여를 위해 GCE의 인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GCE 관심 정도와 참여 의사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주목할만 하다. 이에 근거해 GCE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면 GCE의 인지 및 관심과 참여 의사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AHP 분석결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환경-인권-다양성 존중-지속가능발전-평화 순으로 GCE의 지표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순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GCE 지표는 모두 균일하게 중요하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비교적 덜 중

요하다고 여기는 지표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표를 우선순위 순으로 교육을 하되, 할애하는 시간의 비중은 역순으로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GCE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GCE 참여 의사, 관심 정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때 핵심가치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설문 응답에 근거해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GCE의 업무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1.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 등의 교육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종사자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류애와 인지적 영역의 확장은 '인간 존중'이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필수요건이다. 사회복지의 기본인 '인간존중'의 요소들을 강화하는 역할로서 GCE를 기대할 수 있다.
3.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인성 및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4. 아동을 대면하고 지도할 때 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단계에 거쳐 '국내외 GCE 정책·현황 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제 현장 종사자의 욕구도 설문조사'의 융합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AIDA 모델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GCE 인지도를 높이고, 점차 이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GCE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업무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GCE의 콘텐츠는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 산출한 핵심가치에 기반한 지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5가지 지표의 우선순위는 AHP 기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콘텐츠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성하되, 모든 지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종사자들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 연구를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전문가 집단(연

구2)과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집단(연구3) 간 GCE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이 생각한 GCE의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었다. GCE 전문가들은 인권, 인간 존엄성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세계시민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개개인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추어야만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인종, 성별 등의 차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GCE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현장 종사자들은 거시적 차원보다는 GCE가 실제 본인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CE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서술형 문항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답변 또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을 GCE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한 전문가들과 달리 현장 종사자들은 5개의 핵심 가치 중 다양성 존중을 세 번째로 선택하는 등 동일 개념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나타난다. 한편, 교육 기간에서도 전문가와 종사자 간 차이가 존재했다. 심층 인터뷰 시 GCE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GCE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설문 결과 대부분이 당일 교육 등 짧은 기간 내 밀도 있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 종사자들이 GCE가 길어질 경우 기존의 담당 업무와 병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안으로 첫째,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집단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공통점이 많은 공교육 교원 대상 GCE 프로그램을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 관련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만 제시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GCE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계할 경우 GCE 콘텐츠, 교육 방식 등 본 연구자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세부적인 커리큘럼 구성은 본 연구의 해외 교육모델 문헌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에서 편의표집으로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셋째, 아동복지 실천현장 소속 참여자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실천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설문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므로 추후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 GCE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 조사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특정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설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GCE 현장 욕구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할 때 아동복지시설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표본별로 응답을 수집하여 기관 간 욕구도 차이를 후속연구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의 연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GCE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GCE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현장 종사자 설문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융합해 활용함으로써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외사례, 국내 GCE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견을 수합해 GCE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환경, 문화적 다양성 등 지역사회를 넘어 지구촌 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류가 세계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더불어 GCE가 강조하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은 사회복지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던 필수교육에서 확장하여 GCE를 실시한다면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

- [1]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 Paris : UNESCO.
- [2] K. H. Park & H. B. Park.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Global Citizenship in Adults. *Global Studies Education*, 8(4), 3-31.
- [3] S. Tawil. (2013).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working papers*. Paris : UNESCO.
- [4] J. H. Yang.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educational discourse regarding early childhoo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sing the network text analysi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0(1), 215-240.
- [5] J. Y. Yee, B. H. Cho, D. J. Chang, M. S. You, M. S. Woo & H. J. Suh. (2014). Social Integration: Concept, Measure,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2), 113-149.

- [6] N. Boyon. (2018). *The Inclusiveness of nationalities: A Global Advisor Survey*. Washington D.C. : Ipsos.
- [7]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020). *Global Peace Index 2020: Measuring Peace in a Complex World*. Sydney : IEP.
- [8] Y. H. Jung & S. J. Ko. (2015). Social Conflict Index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Cross-section of 7 Countri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21(0), 44-55.
- [9] H. B. Park & H. S. Cho.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2), 197-227.
- [10] M. S. Ohem & D. I. Chun. (2010). The effect research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advocacy impact the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3, 211-238.
- [11] P. Sherman. (2016). Preparing social workers for global gaze: locating global citizenship within social work curricula. *Social Work Education*, 35(6), 632-642.
- [12] D. Lee, D. Kim & W. Shin. (2017).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Children's Personal Competency*. Seoul : Good Neighbors. in Korean
- [13] B. J. Kang. & J. S. Kim (2002). A Case Study on Retaining Needs of Childcare Workers at Institu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5-31.
- [14] D. H. Jho. (2015). Citizen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Global-Multicultural Korea - Emerging Issues and Challenges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17(1), 1-18.
- [15] E. S. Lewis. (1898). *AIDA sales funnel*. Obtenido de Proven Models. <http://www.provenmodels.com/547/aidasales-funnel/elias-st-elmo-lewis>.
- [16] F. U. Rehman, T. Nawaz, M. Ilyas & S. Hyder.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mobile and email marketing using AIDA model. *Journal of Basic and Applied Scientific Research*, 4(6), 38-49.
- [17] L. Chaojie. (2015). The application of "AIDA" model to economic classes. *Вестник Южно-Ур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Образование.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7(4).
- [18] X. L. Polk. (2018). Marketing: The Key to Successful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Marketing Development & Competitiveness*, 12(2).
- [19] M. Pashootanzadeh & S. Khalilian. (2018). Application of the AIDA model: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elevision programs in encouraging teenagers to use public libraries. *Information and Learning Science*.
- [20] Y. S. Lee. (2001). Reconsideration on Development Issues Affecting children and Optimization of Child Child Develop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3, 421-442.
- [21] S. Y. Park. (2009). The need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for globalization : a case study from England.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7(3), 13-24.
- [22] M. Schweisfurth. (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Teacher agency and curricular structure in Ontario schools. *Educational Review*, 58(1), 41-50.
- [23] J. E. Shin. (2017). Current Status and Cas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f NGOs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2(3), 63-90. in Korean
- [24] M. Larsen & L. Faden. (2008). Supporting the growth of global citizenship educators. *Brock Education Journal*. 17(1), 91-104.
- [25] D. Gogebakan-Yildiz. (2018). Global citizenship training program for teacher candidate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3(12), 436-446.
- [26] J. W. Jeong. (2013). A Study on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8, 5-37.
- [27] E. J. Kim & J. H. Park. (2020). Challenges of National Implementation for Ambiguous Global Policy Goal: Analysi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32(1), 51-68.
- [28] S. Lee, M. Kim, B. Chung, Y. Park, Y. Jo, S. Song & S. Lee. (2015). The practices and challeng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n schools.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5, 116-121.
- [29] W. S. Kang. (2017). An Analysis of Teachers' Concerns Regard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Based on Concerns-Based Adop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017, 21(1), 47-58.
- [30] H. K. Yeo, S. K. Hwang & T. J. Park. (2011). A Study on The Cooperation Networking and Network Participant Intention of Employees on MICE Industr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3(1), 7-23.
- [31] Y. S. Choi, E. Y. Son & S. R. Park. (2018). A Study on the Global Citizenship, Career Identity and Self-Identit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2), 131-149.
- [32] K. O. Park & J. H. Ryu. (2016). Effect of Environmental Knowledge, Awareness, Concern, Value and Practical Contribution Behavior of Employee on Hotel - Comparis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n Environmental Education or Volunteering Experience -.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8(4), 149-166.
- [33] D. W. Kim & K. H. Yi. (2017). A Study of the Situation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School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2, 45-95.
- [34] T. Saaty.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or decision making. *New York: McGraw.*

- [35] J. H. Kim & E. J. Yi. (2013). Assessment of Cultural Competence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Journal of Product Research, 31(4)*, 89-104.

유 수 정(Sujeong Yu)

[학생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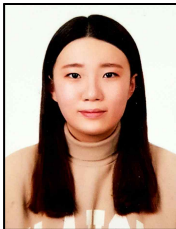


- 2020년 8월 : 연세대학교 학사(지속개발협력학과, 사회복지학과)
- 2020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중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인턴 연구원
- 관심분야 : 여성 정신건강, 학제 간 융합연구, 젠더폭력, 건강불평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E-Mail : ysj9706@yonsei.ac.kr

최 희 진(Heejin Choi)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학사과정(사회복지학, 심리학)
- 2020년 8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 관심분야 : 아동복지, 다문화가정복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학제 간 융합연구

· E-Mail : chj991012@yonsei.ac.kr

송 인 한(In Han Song)

[종신회원]



- 2007년 8월 : 미국 시카고대학교 박사(사회복지행정학)
- 2007년 8월 ~ 2009년 2월 : 미국 뉴욕 아델파이대학교 조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미래융합연구원 융합 아카데미 소장

· 관심분야 : 정신보건 및 보건의료사회복지, 학제 간 융합연구 방법론

· E-Mail : isong@yonsei.ac.kr